

전문병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클·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본회 경영이사)

전문병원은 효율성(생산성 향상)이 핵심이다. 국민은 보다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의료를 원한다.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효율성이 뛰어난 병원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병상수의 과잉 공급으로 급성기 병상을 요양 병상으로 전환하거나 당일 수술 센터의 활성화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계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절감을 꾀할 필요가 있다.

전문병원의 필요성

첫째, 의료계는 의료 기술과 진단 기계의 발달에 따라 과거 가내수공업적인 형태에서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적이며 고가의 장비와 시설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날로 발전함에 따라 일어나는 현대 의료의 고비용 구조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한 곳에 모아, 여러 의사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낭비 요인을 없애는 길만이 해결책이다.

둘째, 국내적으로 의료공급이 많아짐에 따라 의료기관간에 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다른 기관에 이월시키고 경

쟁력이 있는 분야만을 선택하여 핵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자원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의료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함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료인의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밖으로는 WTO 개방 체제라는 세계화의 흐름과 곧 앞으로 다가올 인천 특구의 외국병원 설립 계획 등은 그 동안 정부의 규제와 보호막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안주해 온 국내의 많은 병원들이 큰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제적인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보다 현대화 되고 서비스가 좋은 전문화된 병원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졌다. 따라서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전문병원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전문병원의 장점

1. 양질의 저렴한 의료
2. 접근성과 편리성이 뛰어나다.
3. 의료의 균일화 및 표준화가 가능하다
4.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5. 인력 및 자원의 낭비가 적다.
6. 여러 의사가 서로 견제함으로써 윤리성·도덕성이 증대된다.

전문병원의 인정기준

국내에 소개 된 전문병원들은 특정질환(대장항문, 심장병, 척추 디스크, 백내장 등)이나 특정 과

목(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인정기준으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 제시한 것이 있다. 그 연구의 제안에 따라 주요 진료과목의 입원 환자 진료비 변이도 0.82 이하를 전문병원 인정기준으로 삼을 경우 획일화된 진료를 조장하게 되어 전문병원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전문병원을 지향하는 병원에게도 난해하여 방향을 명확히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전문병원의 인정기준을 질환 중심으로 할 경우 질병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만큼 모두 세분화해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진료과별로 하더라도 진료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과별 인정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특정 전문과목이나 몇 개 과가 협진 체제를 구축해서 보다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진료를 행하는 기관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능한 인정 기준은 1. 특정질환이나 특정과 환자의 분포 및 비율 2. 전문의 수 3. 간호사 수 4. 진료실적 및 질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문병원의 활성화 방안

전문병원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만한 지표와 중증도 지표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on Quality)에서 사용하는 질 지표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전문병원

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 배정되었던 전공의를 전문병원으로 rotation 방식으로 배정하는 방안은 전공의에게는 다양한 질병에 접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병원간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전문병원제도 도입에 앞서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일정한 전문병원을 선정하여 일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운영성과를 병원협회에서 주관하는 병원신입평가와 서비스평가를 이용하여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인정기준을 조정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문병원 수가산정

전문병원의 수가 산정시 가산을 조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적정한 수가를 기대할 뿐 언급을 자제하고 싶다. 다만 차제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 말씀이 되는 수가 산정에 불공정 요인이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1. 외래 본인 부담금의 종별 차등 2. 선택진료제의 종별 차등 3. 종별가산을 제도 등이다.

이러한 불공정 규정에 의한 의료비의 차등이 환자의 기관별 배분을 왜곡시키며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확실한 근거없이 막연히 각 종별 기관의 존립과 육성을 위해 책정한 제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장의 수요 공급과 유리되어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으며, 시장의 왜곡과 의료기관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수가를 미국이나 일본 처

럼 종별에 따른 차등을 주지 말고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의료계의 수가 산정은 주로 원가를 분석함으로써 그 원가에 일정비율의 이익을 붙여 주는 cost-plus system이다. 그러나 이러한 cost plus system은 원가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어 협상 당사자가 원가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며, 원가절감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다양한 국내 여러 의료기관들이나 시민단체, 국민들이 의료 수가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해마다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의료계와 정부, 의료계와 시민단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 과잉시대에 수가를 어느 정도 시장에 맡김으로써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토요타 경영처럼 보다 cost-effective 하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의료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 첨병에 cost-effective 한 전문병원이 있다. 2003